

제 2 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 수학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음악?

과학자로서 경제학자

- 경제학
 - 과학
- ()
 - 과학자
 - 이론을 고안
 - 데이터를 수집
 - 데이터를 분석



“마이클, 나는 사회과학자란다. 말하자면 나는 전기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혹시 네가 사람에 관해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내게 물어보면 된단다.”

- 경제학자들도 먼저 이론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이론이 맞는지 검증
 - ()에서는 실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는 자료에 크게 의존
- 가정(assumptions)
 -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여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문제에 따라, 단기와 장기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가정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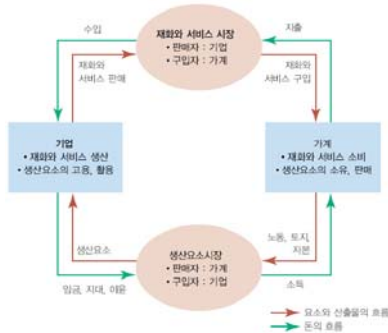
경제모형

- 경제모형
 - 그래프와 방정식
 - 일정한 ()을 전제
 -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

()

- 경제순환모형도(circular-flow diagram)
 - 시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 간에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경제모형
- 두 종류의 의사결정자
 - 기업과 가계
- 두 시장
 - 재화와 서비스 시장
 - 생산요소시장

그림 2.1: 경제순환



()곡선

-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개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효율성
 - 기회비용

그림 2.2: 생산가능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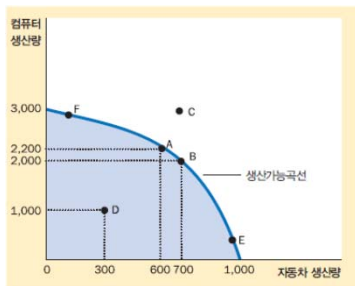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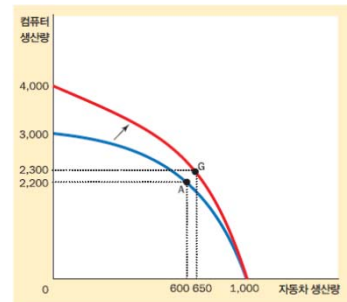


그림 2.3: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과 같이 나라 경제 전체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정책조언자로서 경제학자

- () 주장(positive statements)
 - 현실이 어떠하다는 주장
 - 설명적
- () 주장(normative statements)
 -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
 - 규범적
- 어느 경제학자가 규범적인 주장을 한다면, 그는 정책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왜 경제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른가

-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실증적 현실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과학적 판단의 차이
-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 가치관의 차이
- 인식과 현실의 차이

표 2.1: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와 동의 비율

1. 주택 임대료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93%)
2.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적 후생수준이 낮아진다. (93%)
3. 변동환율제는 유효한 국제통화 체제다. (90%)
4. 조세 감면이나 정부지출의 증가와 같은 재정정책은 완전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는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90%)
5. 미국 정부는 고용주들이 해외 근로자에게 외주(outsourcing) 주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90%)
6.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경제성장을 통해 더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88%)
7. 미국 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85%)
8. 좋은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자본 형성을 촉진한다. (85%)
9. 미국의 지방정부는 지역 프로 스포츠팀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85%)
10. 정부재정의 균형은 매년 달성하는 것보다 경기순환 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85%)

표 2.1: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

11. 현재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적자 규모는 50년 이내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85%)
12. 현금을 주는 것이 같은 값의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이다. (84%)
13.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83%)
14. 소득 재분배는 미국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다. (83%)
15.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83%)
16. 미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82%)
17.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79%)
18.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조는 '마이너스 소득세(부의 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79%)
19. 배출부과금 제도와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 상한 규제보다 우월한 방식이다. (78%)
20. 미국 정부의 예탄올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감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78%)

부록 표 2.1: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명제들

명제	미국	한국
1. 주택 임대료 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93	87
2. 관세와 수입쿼터가 부과되면 대체로 경제적 후생수준이 낮아진다.	93	95
3. 변동환율제는 유효한 국제통화체제다.	90	96
4. 조세감면이나 정부지출의 증가와 재정정책은 완전고용에 미달한 경제에서는 현저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90	91
5. 정부재정의 균형은 매년 달성하는 것보다 경기순환주기를 단위로 달성해야 한다.	85	88
6. 현금을 주는 것이 같은 값의 물건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에게 더 이득이다.	84	80
7.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83	86
8.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	79	80
9. 빈곤층 소득보조는 '마이너스 소득세(부의 소득세)' 개념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79	85
10. 배출부과금(피구세라고도 함)과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 상한 규제보다 우월한 방식이다.	78	84